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개발과 타당화*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a Scale for Measuring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오지현(Ji Hyun Oh)¹⁾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measures of a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fter construct factors of a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and existing scales were explored, the first preliminary items were extracted. After the content validity was confirmed by expert opinions, the second preliminary items were composed, and the initial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ree principal factors and 21 items were revealed to be most suitable. The factors of the scale consist of emotion-coaching-reactions, oversensitive reactions, and emotion-minimizing-reaction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reliability analysis and validation analysis of the scale was conducted, by means of surveying 413 elementary students. The internal coherence reliability and test-retest reliability were verified as was the general internal coherence and timing stability of the scale. There were three additional verifications to validate the scale. (1)For the evidence based on internal structure,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nvergent-discriminant evidence; this resulted in confirming the factor structure of the scale as being reliable. (2)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to other variables, the correlation analysis came in effect to the overall scale and each of its sub-factors, showing that they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scale of the child's perception on rearing

* 본 논문은 2013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임.

¹⁾ 삼성의료원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Ji Hyun Oh, Samsung social mental health institute, Gaeporo, Gangnam-gu, Seoul
135-230, Korea
E-mail : maple282@nate.com

attitudes of the mother. (3)As for evidence based on the consequences of the test, the correlation analysis produced a result showed that sub-factors of the scale have as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Keywords : 정서-사회화(emotion-socialization),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척도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ity of a scale).

I. 서 론

부모는 자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대상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정서적 반응은 자녀를 정서적으로 사회화 시키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자녀의 정서적 유능성 즉,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과 자신의 정서를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감정조절을 학습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enham & Kochanoff, 2002; Eisenberg et al., 2003; Gottman, Katz & Hooven, 1996).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자녀의 정서적 유능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의사소통 유형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Kim & Yoo, 2010; McFadyen- Ketchum, Bates, Dodge, & Petit, 1996; Park & Kim, 2005)이 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양육행동은 의미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부모의 정서적 반응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Eisenberg, Cumberland와 Spinard(1998)는 정서 관련 양육행동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란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부모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자녀와 정서적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정서에 대하여 반응하는 태도를 말한다(Eisenberg et al., 1998).

특히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은 아동의 정서 및 사회적 유능성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Eisenberg & Fabes, 1994; Gottman et al., 1996; Lee, Choi, & Sung, 2007; Park., 2004).

이렇듯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중,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중요한 외적 환경이자 자녀의 정서적 유능성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Chung, 2008). 이는 자녀 역시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정서적 위로와 격려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보고(Eisenberg et al., 1998; Lee et al., 200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 감정 또는 정서의 표출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Kring, Smith, & Neale, 1994), 자녀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보다는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경우에 부모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Dunn & Brown, 1994; Siegel & Hartzell, 2004). 또한,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정서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도 긍정적 정서보다 더 중요성이 강조된다(Dunn, Brown, & Bearsall,

1991). 예를 들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을 감소시켜 정서조절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반면, 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적응력 있고 유능한 사회적 행동 유형이 발달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상기한 바와 같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아동 후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Park, 2004). 그러나 최근에는 후기 아동기의 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도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자녀의 정서적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Yap, Allen, Leve, & Katz, 2008). 뿐만 아니라 후기 아동기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발달시켜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시기에 속하며, 청소년기보다 부모의 양육 행동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Cha, Doh, & Choi, 2010)는 후기 아동기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정서사회화가 중요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후기 아동기의 정서적 유능성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부재로 인해 후기 아동기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Cho, Doh, & Kim, 2010; Kim, Doh, Kim, & Park, 2007; Seo & Lee, 2008)에서는 유아기(3~7세)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PACES(Parent Attitude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를 번역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PACES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 번째로 각 요인별 문항수가 적어 신뢰도에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가설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기에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문항들이 있다. 두 번째는 하위요인이 수용-통제의 두 요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측면의 어머니 반응을 살펴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Fabes et al., 2002). 이후 개발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다양한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있고 심리 측정적 속성을 검증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요인구조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유아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설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후기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태도를 측정하기에는 응답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Cho et al., 2010). 뿐만 아니라 PACES와 CCNES의 하위요인이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들에서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측정도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Cho et al., 2010; Kim et al., 2007; Kim & Nahm, 2011; Tao, Zhou, & Wang, 2010). 즉, 기존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우리나라 어머니의 반응 양상을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을 논의 하였다. 이는 기존 척도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된 척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기존 척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정서문화에 적합한 척도를 개발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 척도 개발을 위해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근거와 관련척도를 바탕으로 가설적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존 척도에서는 부모가 평가하는 방식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측정기준을 자녀가 지각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양육행동이나 공감행동에 있어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실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녀의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연구(Cho, 2010; Trumpeter, Watson, O'leary, & Weathington, 2008)를 근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보고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자신을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척도가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알아보는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또한, 척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타당도 검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AERA, APA 와 NCME(1999)에서 규정한 내적구조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internal structure),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relations to other variables), 검사결과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consequences of testing)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내적구조에 기초한 근거는 구성개념 타당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에서는 공인 타당도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보고하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척도가 국내에서는 부재한 실정이라 이와 유사한

구인으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와 관련성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양육 반응성을 파악할 수 있는 태도로써 일반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성이 높다(Zelman & Shipman, 1996).

마지막으로 검사결과에 기초한 근거는 본 척도를 통해 얻은 결과가 무엇을 위한 평가이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타당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자녀의 정서적 유능성(Cho et al., 2010; Eisenberg & Fabes, 1994; Goleman, 1995; Lee et al., 2007;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Seo & Lee, 2008; Yap, Allen, & Ladouceur, 2008)과 사회성 및 적응적 행동(Fabes et al., 2001; Fabes et al., 2002)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고려해 본 척도의 하위요인 간 관련성 및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전반적인 정서적 능력을 알아보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과 아동기의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인 탄력성(Resilience)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척도의 결과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본 척도가 향후 관련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부모교육 및 임상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측정도구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개발을 통해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 사회성 발달증진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아니라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

머니의 반응과 후기 아동기의 정서 및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각 구성요인과 문항내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1차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연령층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발달시켜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시기에 속하며, 청소년기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Cha, Doh, & Choi, 2010)에 근거하였다. 또한, 후기 아동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의 정서발달 과정의 중요한 시점으로(Goleman, 1995), 자신이 시도하는 정서조절의 내적과정을 이해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며 여러 가지 정서적 자극에 대한 표현이나 전략이 안정되기 시작한다는 발달적 관점(Chung, Chung, & Lim, 2008)을 고려하였다.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 질문지를 서울과

인천 지역의 K, D, G 초등학교의 4-6학년 각각 6개 학급씩 총 18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55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535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부자가정인 경우와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20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249명(47.9%), 여학생이 271명(52.1%)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초등 4학년이 181명(34.8%), 5학년이 161명(31.0%) 6학년이 178명(34.2%)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어머니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260명(50%)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상은 216명(41.5%), 전문대학 졸업은 31명(6.0%), 중학교 졸업이하는 13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은 40세 미만이 188명(36.1%), 40에서 50세 미만이 314명(60.6%), 50세 이상이 18명(3.4%)으로 나타났다.

2) 2차 조사 대상

본 연구의 2차 조사는 연구문제 1에서 개발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요인 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1차 조사의 표본과는 상이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즉, 인천과 경기 지역의 J와 H초등학교의 4~6학년 각각 5개 학급씩 총 15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45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430부를 회수하였는데 이 중 부자가정인 경우와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413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214명(51.8%), 여학생이 199명(48.2%)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초등 4학년이 136명(32.9%), 5학년이 137명(33.2%) 6학년이 140명(33.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어머니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230명(55.7%)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상은 159명(38.5%), 전문대학 졸업 17명(4.1%), 중학교 졸업이하는 7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은 40세 미만이 113명(27.4%), 40에서 50세 미만이 288명(71.4%), 50세 이상이 12명(2.9%)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Park(1995)이 제작한 아동용 양육행동척도를 Kim(2003)이 재요인분석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Park(1995)의 아동용 양육행동척도는 온정·수용, 허용·방임, 거부·제재의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Kim(2003)은 아동이 보고하기에 문항수가 많다고 여겨 하위요인별로 요인 부하량이 높은 10문항씩을 선정하고 이를 요인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세 하위영역이 확인되었고 총 30문항이 선정되었다. 본 척도의 하위요형은 온정·수용 행동 10문항, 허용·방임행동 10문항, 거부·제재 행동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각 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 유형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 검증 결과 온정/수용 행동 .91, 허용/방임 행동은 .77, 거부/제재 행동은 .88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Moon(1996)이 제작한 자기 보고

식 초등학교 3-6학년용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7문항이며 정서인식 8문항, 정서표현 7문항, 감정이입 7문항, 정서조절 15문항, 정서활용 10문항의 다섯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 검증 결과 정서인식 .85, 정서표현 .76, 감정이입 .78, 정서조절 .91, 정서활용 .76으로 나타났다.

3) 아동용 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Joo와 Lee(2007)가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아동용(초등학교 4~6학년) 탄력성 척도(Resilience Scale for Children : RSC)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30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자기효능감 8문항, 부정적 감정의 인내 8문항, 긍정적 지지관계 4문항, 통제력 6문항, 자발성 4문항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에서 탄력성(Resilience)이란 한 개인이 의미 있는 불행한 사건과 역경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기의 탄력성은 그들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즉,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노력과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관련되는 동시에 정서와 행동에 대한 자기조절을 요구하는 과정을 뜻한다(Joo & Lee, 2007).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 검증 결과 자기효능감 .90, 부정적 감정의 인내 .90, 긍정적 지지관계 .81, 통제력 .89, 자발성 .8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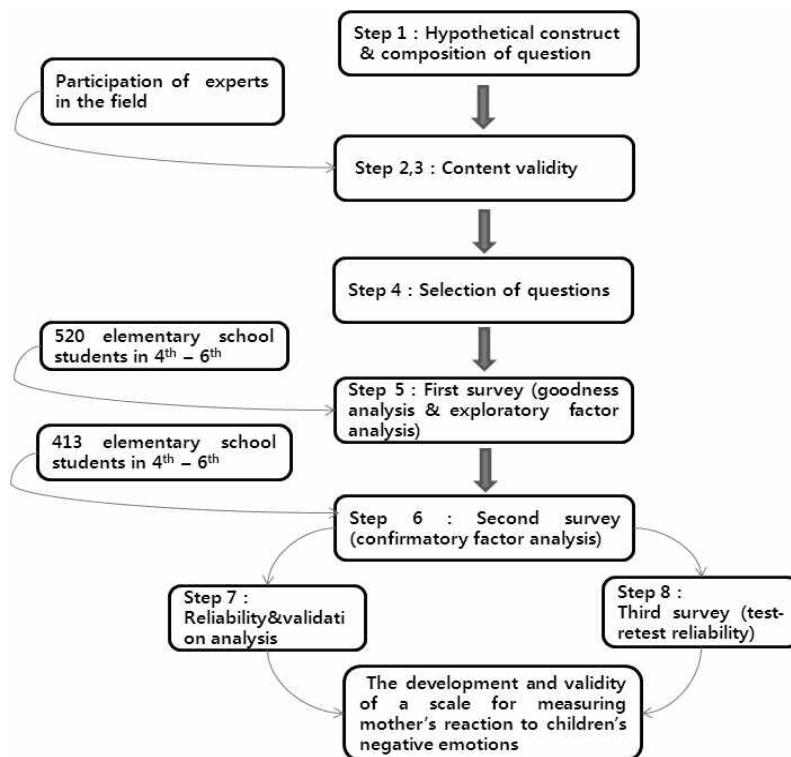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해 Figur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8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다.

1) 문항 개발

1단계로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개념을 정리하고 역사적 관점을 살펴보면서 척도의 구인을 찾아내고 가설적인 하위영역과 예비문항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문헌을 통한 가설적인 하위영역은 Saarni(1989)와 Fabes 외(1990)가 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

시했던 PACES와 CCNES의 하위영역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Gottman(2007)이 제시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특성들에 대한 하위유형들을 고려하여 지지적 반응에는 감정대처, 감정전환, 감정격려반응으로 구분하였고 비지지적 반응과 관련해서는 감정비난, 감정축소, 마지막으로 과잉반응과 관련해서는 과잉수용, 과민반응으로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소에 대한 예비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서 하위개념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활용되는 도구를 살펴보았다(Table 1). 다음으로 서양의 정서 문화와 동양의 정서 문화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특징들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척도들(Choi, 2007; Lim & Chung, 2004)을 살펴보았고, 본 연구에서 가정한 하위



<Figure 1> Research process

요인과 관련이 높은 구인들을 측정하는 척도들 (Cho, 2010; Chung & Jang, 2008; Lazarus & Forkman, 1991; Park, 1995; Park, 2010; Paker & Lipscomb, 1991) 또한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척도에는 7개의 하위요인(감정격려, 감정대처, 감정전환, 감정비난, 감정축소, 과잉수용, 과민 반응), 총 98문항이 포함되었다.

2) 문항 선별 및 적합성 여부 검토

다음 2단계는 상기 과정을 통해 구성된 요인과 예비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 7명에게 문항들에 대한 내용 평정을 하였다. 3단계는 1차 내용 타당도 검증에서 주관적 평가란에 제안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문항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85문항을 선별하였고 이에 대한 평정을 위해 내용 타당도 검증을 재실시하였다. 4단계는 문항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평가

하기 위해 국문학, 철학 전공 관련 전문가 2명에게 하위요인의 개념을 설명한 후 평정하게 하였다.

3) 1, 2, 3차 조사 및 타당도 검증

5단계는 예비문항 설문지로 1차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변별도 검증을 실시하여 적절한 문항과 요인을 최종 선별하였다. 6단계에서는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1차 조사의 표본과는 상이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질문지는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포 및 회수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7단계로는 타당화를 위해 구인타당도, 집중-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아동의 정서지

<Table 1> The sub factor of parent's reaction(or attitude) to children(or adolescents)'s emotions

Sub factor	Target age	Reference
Acceptance, control	Preschooler	Sarnni(1989)
Expressive encouragement, problem focused, emotion-focused, punitive, encouragement, distress	Preschooler child	Fabes et al.(1990)
Awareness of emotion, acceptance of the view, empathy, callous, oversensitive	Adolescence	Cho(2010)
Dis-belief, teaching, respect, concern	Adolescence	Lim & Chung(2004)
Close relation, devotion, respect, strictness	Adolescence	Choi(2007)
Warm · understanding, permissive · neglectful, refusal · restriction	Child	Park(1995)
Psychological control, over-protectiveness, neglectful, refusal, non-control, education	Child	Park(2010)
Over-protectiveness, care	Child	Paker & Lipscomb(1991)
Over-protectiveness/anxiety, excessive expectation, excessive control, excessive affection	Adolescence	Chung & Jang(2008)

능, 탄력성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결과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 8단계로 3차 조사는 본 척도의 신뢰도를 재측정하기 위하여 2차 조사에서의 동일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4주 후에 설문조사를 재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프로그램과 AMOS 20.0 프로그램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 Cronbach α 계수 등을 구하여 적합한 문항을 추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해서는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값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구성개념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집중-판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공인타당도와 결과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이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개발

1) 내용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척도 개발을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한 개념을 정리하여 척도의 구인을 찾아내고 가설적인 하위영역과 문항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연구절차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예비문항은 7개의 하위요인과 98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요인과 예비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에 의하여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검사 내용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test content)를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아동학 및 심리학 관련 전문가 7명에게 내용평정을 실시한 결과 점수평정 외에 주관적 평가란에 작성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예를 들면, ‘내가 불안해 할 때, 내가 화를 낼 때, 속상해 할 때’ 등의 표현을 ‘내가 부정적 정서(화, 짜증, 불안, 슬픔 등)를 겉으로 드러내거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나의 어머니는...’의 문구를 전체 문항 앞에 제시함으로써 상황제시(예 : 내가 시험을 망쳐서/ 아끼는 물건을 잃어 버렸을 때)와 정서상태의 표현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는 간결한 문장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의미가 유사한 문항인데 상황과 정서 상태만 다른 경우에는(예 : 내가 불안해 할 때/ 내가 화를 낼 때 등) 공통된 의미의 한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총 85문항이 선별되었다.

다음으로 수정한 85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재검증을 위해 아동복지학 전공 교수 2인과 아동심리치료 전공의 박사수료생 2인이 참여하여 문항 내용을 비교 분석한 후 상호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 하거나 수정하는 선별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면, 13번 문항(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함께 연습해 보자고 하신다)과 7번 문항(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다)의 유사성으로 13번을 삭제하고 7번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14번 문항

(내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습해 보자고 하신다)과 10번 문항(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신다)의 유사성으로 14번 문항을 삭제하고 10번 문항을 수정 후 사용하였다(수정 후: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아동학 및 심리학 관련 전문가 6명에게 2차 내용평정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각 문항이 각 요인의 구성개념에 적합한지, 문장이 간결하고 명확한지, 표현이 적절한지를 ‘매우 적절하다’의 5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1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전문가 두명 이상이 문항의 적절성을 3점 이하로 평가한 문항은 삭제하여 총 63문항을 선별하였고 이러한 문항들의 정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국문학, 철학 전공 관련 전문가 2명에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구인과 하위요인의 개념을 설명한 후 문장이 간결한지, 표현이 적절한지, 뜻을 알기 쉬운지에 관하여 평정하게 한 방식으로 3점 이하로 평가한 문항은 삭제하였고 부적절한 문법을 보이는 문항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7문항이 추출되었다.

2) 문항양호도

앞선 과정을 거쳐 선정된 예비문항 설문지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문항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57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과 총점 간 상관, 문항 제거시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 상관관계와 해석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문항을 삭제하는 기준은 문항을 제거할 경우 내적 일치도가 상승하는 문항(Devellis, 2003)과 평균이 2.0미만이거나 4.0을 초과하면 연구대상

자들의 능력과 상관없거나 또는 기대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없고, 표준편차 1.0 이하인 경우는 문항의 편포가 없어 변별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Park, 2000)로 하여, 평균이 2.0 미만인 문항 3개를 제거하였다. 또한, 개별 문항과 전체 문항 총점 간 상관관계수 값이 0.3 이하인 경우는 한 요인의 관찰변인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Park, 2000). 즉, 상관관계가 ± 0.3 이하로 나타난 문항은 다른 문항들과 동일한 속성을 측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별력이 낮아지므로 문항-총점 간 상관이 ± 0.3 이하인 문항 8개를 제거하였다.

문항양호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을 삭제한 후 선별된 46문항은 평균과 표준편차가 극단적 점수 없이 적절히 나타났고 상관이 ± 3.0 이상이며 문항 제거 시 내적 일치도 또한 안정적으로 나타난 문항들로 척도 개발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KMO(Kaiser-Meyer-Olkin)의 측정치를 알아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KMO 값은 .912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는 3989.39($df = 210, 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46문항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잠재적인 공통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공통요인 모형의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요인구조의 회전은 Oblimin 방식으로 사각회전 하였다. 다음으로 요인의 수

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 값(Eigen value), 스크리 도표(Scree plot), 누적분산비율, 해석가능성의 기준을 모두 고려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값이 1이상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6개가 추출되었으나 3개 요인을 제외하고는 설명변량이 미미하였다. 요인의 수를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의 개수로 정한다는 법칙(Kaiser-rule)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요인의 수를 정할 때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고(Kim, Kim, & Hong 2009)를 근거 삼아 다른 결과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즉, 스크리 도표에서는 3요인과 4요인사이에서 고유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누적분산비율을 바탕으로 보면 3요인까지가 전체 분산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3개의 요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요인구조에 대한 해석가능성 또한 3요인이 적합하다고 여겨 요인의 수를 지정하고 요인구조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후, 요인 내 문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요인구조의 형태계수 행렬(Pattern matrix)과 구조계수 행렬(Structure matrix)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40이상인 문항(Costello & Osborne, 2005)과 타요인과 .4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지 않는 문항을 추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Kim, 2010; Kim et al., 2009). 또한 해석 차원에서 다른 문항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항을 제외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25문항을 삭제하였고 총 21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들 3개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51%로 나타났으며, 최종 요인구조와 요인 부하량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들 3개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요인 1은 가설적 하위요인의 감정격려, 감정전환 반응의 문항들이 합쳐져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어머니는 자녀가 왜 특정 생각을

하고 특정 감정을 느끼는 것인지를 이해한 후 상대방의 생각과 정서에 대해 적절한 정서로 반응하는 공감(Baron-Cohen & Wheelwright, 2004)의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코칭(Coaching)하는 감정격려반응의 문항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 Gottman 외(1997)의 연구에서 감정코칭형 부모는 자녀의 정서를 공감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며,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를 정해 주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감정코칭형의 부모태도와 본 척도의 요인 1과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져 ‘감정코칭’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가설적 하위요인의 과민 반응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감정 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인정하고 수용하기는 하지만 아동이 표현하는 정서 수준보다 과도한 불안과 불편함을 보이는 내용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 2를 ‘과민’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가설적 하위요인의 감정축소 반응 문항들과 비난 반응 문항 1개가 합쳐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제거하거나 회복시키려고는 하나 자녀 중심적이기 보다는 상황 또는 어머니 중심으로 반응하는 내용과 관련된다. 즉,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자녀의 감정은 무시한 채, 상황중심으로 판단하고 어머니 입장에서 반응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가설적 하위요인의 비난반응 문항 1개 또한 ‘나의 기분이 어떤지는 생각도 않고 내 실수나 잘못을 지적한다’는 문항인데 이 또한 자녀의 감정보다는 상황 중심으로 반응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요인 3은 ‘감정축소’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Table 2> Factor analysis for the items

(N = 520)

Sub scale	Item initial	Item	Factor loading		
			1	2	3
		When I express negative emotions(anger, irritation, anxiety, sadness, et al), my mother usually.....			
Emotion-coaching reaction	15	She suggests how to relieve my stress	.78	-.11	-.01
	28	She waits until I calm myself down	.75	-.05	-.00
	29	She makes plans together to deal with the situation next time	.74	.01	.03
	50	She asks me why I had this kind of feelings	.73	-.04	.01
	38	She gives comfort to me and helps me to forget the matter	.73	.02	-.03
	31	She cheers me up to feel better	.73	.11	-.09
	55	She waits until I am able to speak about what is on my mind	.66	.05	.02
	49	She seems to understand me even though I don't tell	.64	.10	-.04
	53	She hugs me or pats me on the shoulder	.63	.03	.06
	14	It feels comfortable to talk since I expect that she'd understand me	.57	.00	-.13
Oversensitive reaction	47	She apprehends excessively how I feel	.06	.74	-.06
	48	She tries to overprotective me	.10	.67	-.13
	54	She is too anxious and worried about me	-.03	.50	.13
	40	It is my mother who has a harder time rather than me	-.13	.49	.06
	12	She worries more than me as I feel burdened to tell	.17	.43	.09
Emotion-minimizing reaction	11	She says that it is no big deal even though I tell her	.04	-.18	.69
	13	She only tries to comfort me having no interests in my feelings or the reason	.08	.15	.56
	4	She tells me vaguely that it is going to be OK without listening to me	-.00	.01	.55
	23	She is inconsiderate of my feelings to point out my mistake or fault	-.16	.13	.50
	18	She has little interests telling me that it is nothing to care about	-.13	-.03	.49
	39	She asks me about things she is curious about rather than my feelings	-.08	.15	.47
Eigen value			6.36	3.00	1.36
Pct of Var			30.29	14.29	6.45
Cum Pct			30.29	44.58	51.03

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타당화

1) 신뢰도(Reliability)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

니 반응 척도의 내적일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본 척도의 각 하위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나의 동일한 개념을 평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인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감정코칭 반응은 .92, 과민반응은 .73, 감정축소 반응은 .82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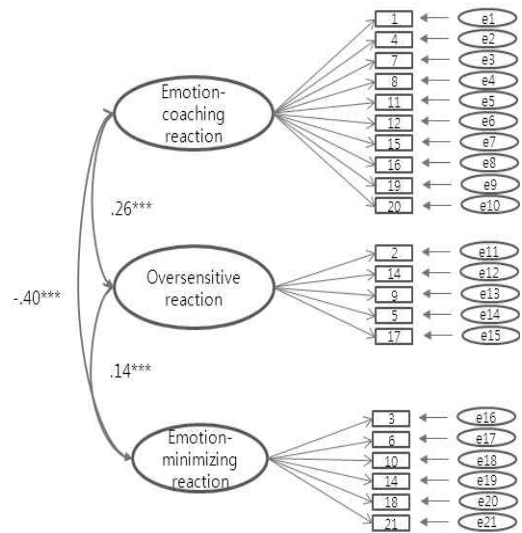
다음으로 척도의 점수가 시간적 변화에 얼마나 안정적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4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하위요인 별로 두 점수 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검사-재검사 하위요인별 상관계수는 감정코칭 반응 .87, 과민 반응 .70, 감정축소 반응 .77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2)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

(1) 확인적 요인분석

앞선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3요인, 21문항이 선정 되었고 이러한 요인구조가 내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Hoyle와 Panter(1995)가 추천한 Chi-square 검증, TLI, IFI, CFI, RMSEA를 살펴보았다.

Table 3에 따르면 χ^2/df 의 값은 2.70으로 본 연구의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대체로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TLI .91, IFI .92, CFI .92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90이상으로 측정모형에 적합한 결과이다(Bentler, 1990). RMSEA는 .05이하면 이상적으로 좋은 적합도이고 .05와 .08사이이면 괜찮은 적합도이며 .08에서 .10사이는 보통 적합도인 것으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Brown & Cudeck, 1993;



<Figure 2> Model of factor structure

Hong, 2000) 본 모형은 .06으로 괜찮은 적합도 수준에 해당된다. 이상의 결과들은 측정변수가 잠재 변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구인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는 상이한 표집에서도 본 연구의 모형이 잘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척도의 3요인 모형에 대한 그림을 Figure 2에 제시하였다.

(2)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집중타당도는 수렴타당도라고도 하며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낸다(Woo, 2012). 즉, 관찰변수인 측정문

<Table 3> Fit indices of observed model

Fit indices	χ^2	df	χ^2/df	TLI	IFI	CFI	RMSEA
Observed model	502.325	186	2.7	.91	.92	.92	.06
Good fitting model			< 3.0	.9	.9	.9	.05 ~ .08

항들이 잠재변수인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을 신뢰롭게 설명하고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요인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중타당도는 요인 부하량, 개념 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A.V.E)인 세 가지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요인 부하량은 .50이상이고(Bagozzi &

Yi, 1998; Kim, 2010),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C.R 값이 1.965 이상, $p < .05$)에 양호한 수준임을 간주하는 기준에 따르면,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3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측정변인이 .60에서 .84 사이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념 신뢰도(C.R)와 분산추출지수(A.V.E)가 높다는 것은 해당하는 요인에 대한 측정문항들의 내적일치

<Table 4> Convergent validity

(N= 413)

		Standardized estimate	S.E	C.R. (t-value)	C. R (Construct reliability)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1	.662	-	-		
	4	.742	.080	13.429***		
	7	.696	.083	12.709***		
	8	.637	.079	11.752***		
Emotion-coaching reaction	11	.842	.081	14.917***	.98	.88
	12	.781	.081	14.014***		
	15	.785	.077	14.077***		
	16	.722	.074	13.112***		
	19	.708	.086	12.898***		
	20	.766	.080	13.793***		
	2	.663	-	-		
Over-sensitive reaction	13	.323	.097	10.173***	.96	.83
	9	.665	.091	10.607***		
	5	.694	.096	10.916***		
	17	.708	.095	11.056***		
	3	.640	-	-		
Emotion-minimizing reaction	6	.781	.098	12.332***	.97	.84
	10	.670	.091	11.086***		
	14	.617	.106	10.392***		
	18	.608	.091	10.268***		
	21	.666	.098	11.036***		

*** $p < .001$.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개념 신뢰도는 .70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는 .50이상이면 만족스러울 만한 집중타당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Bae, 2011; Woo, 2012). 본 연구에서는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공식1)으로 계산한 결과 감정코칭 반응 .98/.88, 과민반응 .96/.83, 감정축소 반응 .97/.84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 13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50 이하로 낮게 나타났지만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고 과민반응 요인의 개념신뢰도는 높은 편이라 문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 판별타당도

다음으로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각각의 요인들이 동일한 개념이 아닌 독립된 개념을 나타내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즉,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가 어느 정도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판별타당도를 검토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두 요인 사이에 구한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에는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Woo, 201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요인 간 상관계수(Figure 1)와 평균분산추출(A.V.E)값을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감정코칭 반응(A.V.E = .88 > $r^2 = .112$), 과민반응(A.V.E = .83 > $r^2 = .125$), 감정축소반응(A.V.E = .84 > $r^2 = .198$)의 평균분산추출 값은 모두 상관의 제곱(r^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각 요인 간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요인들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관계수가 1.0이 되므로 95% 신뢰구간에서 『상관계수 ± 2 × 표준오차』가 1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개념들 간에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하여 요인 간 판별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omposite elements and the value of 『correlation coefficient ± 2 × standard error』

	Emotion-coaching reaction	Oversensitive reaction	Emotion-minimizing reaction
Emotion-coaching reaction			
Oversensitive reaction	.26 (.08~.43)		
Emotion-minimizing reaction	-.40 (-.32~- .47)	.14 (.04~.23)	

$$1) \text{ 개념신뢰도 } (C.R) = \frac{(\Sigma \text{표준적재치})^2}{[(\Sigma \text{표준적재치})^2 + \text{측정변수의 오차합}]}$$

$$\text{평균분산추출지수 } (A.V.E) = \frac{(\Sigma \text{표준적재치})^2}{[(\Sigma \text{표준적재치})^2 + \text{측정변수의 오차합}]}$$

다(Bae, 2011).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하위요인 간 95% 신뢰구간의 상관계수는 1이 아닌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각각의 요인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임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3) 공인타당도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공인 근거를 검증하고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들(온정·수용 행동, 허용·방임 행동, 거부·제재 행동)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감정코칭 반응은 온정·수용행동($r = .77, p < .001$)과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거부·제재행동($r = -.51, p < .001$), 허용·방임행동($r = -.27, p < .001$)순으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의 감정코칭반응과 긍정적 양육행동인 온정·수용행동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정적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양육행동인 거부·제재행동 및 허용·방임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민 반응은 온정·수용 행동($r = .23, p < .001$), 허용·방임 행동($r = .22, p < .001$)순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과민 반응은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과도 정적상관을 보였고 허용과 방임

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과도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축소 반응은 온정·수용행동($r = -.45, p < .001$)과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거부·제재 행동($r = .64, p < .001$), 허용·방임행동($r = .29, p < .001$)순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감정코칭 반응과는 반대의 결과로 어머니의 감정축소 반응은 부정적 양육행동인 거부·제재행동과 허용·방임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이고 긍정적 양육행동인 온정·수용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과타당도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로 측정된 결과점수가 자녀의 정서능력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적 능력을 측정하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Table 7에 의하며 감정코칭 반응은 정서지능 총점($r = .58, p < .001$), 정서조절($r = .54, p < .001$), 정서활용($r = .50, p < .001$), 감정이입($r = .37, p < .001$), 정서인식($r = .33, p < .001$), 정서표현($r = .19, p < .001$) 순으로 정적 상관을 나타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N = 413)

	Emotion-coaching reaction	Oversensitive reaction	Emotion-minimizing reaction
Warm · understanding	.77***	.23***	-.45***
Permissive · neglectful	-.27***	.22***	.29***
Refusal · restriction	-.51***	-.02	.64***

*** $p < .001$.

<Table 7> Correlation between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and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N = 413)

	Emotion-coaching reaction	Oversensitive reaction	Emotion-minimizing reaction
Emotion- awareness	.33***	-.12**	.01
Emotion-expression	.19***	-.11*	-.20*
empathy	.37***	.02	-.10*
Emotion-regulation	.54***	.06	-.27***
Emotion-utilization	.50***	.10*	-.27***
Emotion intelligence sum	.58***	.04	-.25***

* $p < .05$. ** $p < .01$. *** $p < .001$.

냈다. 즉, 어머니의 감정코칭반응은 자녀의 정서지능 총점과 정서지능의 구성요인인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 모두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민 반응은 정서인식($r = -.12, p < .01$), 정서표현($r = -.11, p < .05$) 순으로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정서활용($r = .10, p < .05$)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과민반응은 자녀의 정서인식과 정서표현능력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반면,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서활용 능력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감정축소 반응은 정서조절($r = -.27, p < .001$), 정서활용($r = -.27, p < .001$), 정서지능 총점($r = -.25, p < .001$), 정서표현($r = -.20, p < .001$), 감정이입($r = -.10, p < .05$)순으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감정축소 반응은 자녀의 전반적인 정서지능과 정서조절 및 활용 능력, 정서표현, 감정이입능력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로 측정된 결과점수가 자녀의 사회

적 적응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적응 능력을 측정하는 탄력성(Resilience)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Table 8에 의하면, 감정코칭 반응은 탄력성 총점($r = .60, p < .001$), 긍정적 지지관계($r = .60, p < .001$), 부정적 감정의 인내($r = .59, p < .001$), 통제력($r = .59, p < .001$), 자기효능감($r = .52, p < .001$), 자발성($r = .49, p < .001$) 순으로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은 자녀가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인 탄력성과 정적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과민 반응은 긍정적 지지관계($r = .12, p < .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과민반응은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 지지관계를 활용하는 능력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감정축소 반응은 긍정적 지지관계($r = -.30, p < .001$), 부정적 감정의 인내($r = -.30, p < .001$), 탄력성 총점

<Table 8> Correlation between child's resilience and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N = 413)

	Emotion-coaching reaction	Oversensitive reaction	Emotion-minimizing reaction
Self-efficacy	.52***	.03	-.25***
Endurance of negative emotion	.59***	.04	-.30***
Positive supportive relationship	.60***	.12**	-.30***
Power of control	.59***	.03	-.26***
Spontaneity	.49***	.03	-.20***
Resilience Sum	.60***	.05	-.28***

** $p < .01$. *** $p < .001$.

($r = -.28, p < .001$), 통제력($r = -.26, p < .001$), 자기효능감($r = -.25, p < .001$), 자발성($r = -.20, p < .001$) 순으로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의 감정축소 반응과 탄력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개발

연구문제 1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척도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감정격려, 감정대처, 감정전환, 감정비난, 감정축소, 과잉수용, 과민 반응의 가설적 하위요인을 구성하였고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예비문항 척도를 구성하였다. 예비문항 척도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항양호도 분석

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요인, 21문항의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추출된 3개 요인에 대하여 PACES(Saarni, 1989)와 CCNES(Fabes et al., 1990)의 구인에 대한 설명과 Gottman과 Nahm(2007)이 제시한 개념에 근거하여 감정코칭 반응, 과민 반응, 감정축소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요인구조는 CCNES(Fabes et al., 1990)와 Gottman과 Nahm (2007)이 제시한 부모 반응 유형에서 내포하고 있는 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 과잉 반응의 개념을 본 척도 또한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어머니 반응 유형을 탐색하고자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7개의 가설적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요인분석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3개의 요인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이론적 근거로 구성된 하위요인의 수가 통계적 검증에서는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추후 연구에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

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특징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는 감성코칭 반응의 발견이다. 가설적 하위요인 중 감성격려, 감성대처, 감성전환 반응이 하나의 유형으로 묶여져 어머니가 자녀에게 공감적이고 코칭적인 반응을 보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감성코칭 반응으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Gottman과 Nahm(2007)이 관찰 및 인터뷰 면접을 통해 제안한 적극적으로 감정을 수용하고 한계를 정해주며 문제 해결 방안을 안내해주는 감성코칭형 부모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즉,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은 제한하고 아이에게 감성조절 방법과 적절한 분출구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Gottman, 1997)을 반영하고 있다.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격려하는 것만이 긍정적 결과와 관련되지 않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격려하면서도 아동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을 수용은 하지만 제한설정이 부족할 경우 자녀는 적절한 정서조절 방식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논의한 연구(Gottman et al., 1997; Seo & Lee, 2008)와 어머니의 적절한 통제와 관심 또는 가르침이 아동의 자존감과 자기 통제력이 높아짐을 밝힌 연구(Ko, 2005; Park & Doh, 2001; Rah & Lim, 2003)가 이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PACES의 수용 반응, CCNES의 격려 반응에 비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감성코칭 반응은 후기 아동기 부모-자녀 관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지지적 반응의 하위요인인 정서중심

반응의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n & Sohn, 2004; Kang & Kang, 1998; Lee, 2007). 이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아이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위로해 주는 정서중심의 사회화 반응으로 대처함을 의미하며, 부모가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기대가 낮아 좀 더 정서중심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논의된다(Lee, 2007; Lee et al., 2007). 그러나 연령이 높아지고 자녀가 성숙함에 따라 집단 안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요구되는 일은 빈번해지고 부모의 기대 또한 높아지면서 부모의 반응 또한 변화된다(Eisenberg et al., 1998). 이러한 후기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 특징으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자녀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반응이 증진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어머니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태도로 공감적이면서도 코칭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타당화

연구문제 2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면 첫째, 본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 때와는 다른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이한 표집에서 요인구조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된 요인구조에서 각각의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집중타당도를 검증하였고 하위요인이 동일

한 개념이 아닌 서로 고유한 특성을 측정하는 요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만족스러울만한 집중-판별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척도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관련성을 알아보았고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가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정코칭 반응은 온정 및 수용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허용 및 방임행동과 거부 및 제재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민반응은 온정 및 수용행동, 허용 및 방임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축소 반응은 온정 및 수용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허용 및 방임행동과 거부 및 제재행동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결과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동의 정서지능과 탄력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로 측정된 결과가 자녀의 정서, 사회적 능력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우선, 본 척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감정코칭 반응은 정서지능의 총점 및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민 반응은 정서인식, 정서표현 그리고 정서활용과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감정축소 반응은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정서지능의 총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지지적일 경우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이 증진되고 비지지적일 경우 자녀에게 심리적인 위축감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결여시켜 소극적인 대처행동을 유발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Morris et al., 2007; Shortt et al, 2010; Valiente et al., 2007; Yap et al., 2008)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본 척도의 하위요인과 아동의 탄력성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코칭 반응은 탄력성 총점 및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민 반응은 긍정적 지지관계와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감정축소 반응은 탄력성 총점 및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서 의미하는 탄력성(Resilience)이란 아동기의 적응력 있는 사회적 능력 중 하나로 위협에 있는 개인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생활에서 새로운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개념으로(Schoon, 2006), 이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하위요인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적응력 있고 유능한 사회적 행동유형을 발달시키고(Fabes et al., 2001; Fabe et al., 2002; Sroufe et al., 1993), 비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아동기에 사회적 유능감과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Eliker et al., 1992)를 뒷받침해 준다. 한편, 과민 반응과 감정축소 반응은 자녀의 정서지능 및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가 다소 낮은 편이다. 이는 본 척도의 감정코칭 반응에 비해 과민 반응과 감정축소 반응 요인은 결과 타당성 검증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

어저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척도는 부정적 감정표현 즉, 화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한 감정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채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는 부모가 부정적 감정마다 보이는 태도에 나타나는 차이(Casey & Fuller, 1994)를 살펴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불안해하거나 슬퍼하는 감정은 어머니가 수용해 주지만 짜증을 내거나 화난 감정은 수용이 안되는 경우인데,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로 구성된 하위요인과 통계적 검증을 통해 나타난 하위요인의 수가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였으며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결과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후기 아동기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사회화의 영향력은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던 동향을 고려해볼 때 후기 아동기를 대상으로 자녀가 보고 하는 어머니 반응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것에 함의점이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정서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자녀 관계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부모교육 및 아동상담현장에서 모-자녀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지도하거나 또는 상담 전문가의 개입과 중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감정코칭 반응은 기존의 척도에서 설명하는 수용 또는 격려 반응에 비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어머니의 반응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지만 측정가능한 척도가 부재한 실정이었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를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References

- AERA., APA., & NCME. (1999). *Standard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llison, C., Baron-Cohen, S., Wheelwright, S. J., Stone, M. H., & Muncer, S, J. (2011).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Empathy Quotient (EQ).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 829-835.
- Bae. B. R. (2011). *(AMOS 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 Chungnam.
- Baron-Cohen, S., & Wheelwright, S. J. (2004). The empathy quotient :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f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2), 163-175.
- Bierman K. K., & Smoot, D. L. (1991). Linking family characteristics with poor peer relations : The mediating role of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341-358.

- Casey, R. J., & Fuller, L. L. (1994). Maternal regulation of children's emotion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8*, 57-89.
- Cha, S. H., Doh, H. S., & Choi, M. K. (2010). The pathways from maternal parenting-behavior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4), 125-137.
- Cho, S. J., Doh, H. S., & Kim, S. W.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6), 167-183.
- Cho, Y. J. (201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al empathy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I. J.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 *Korea Youth Counseling Research, 15*(2), 45-56.
- Chung, E. Y., & Chang, S. S. (2008). The development of an overprotection scale based on teenager's perception of their mother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 293-312.
- Demitrovich, C. E., & Bierman, K. L. (2001).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 Multiple pathway of influ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7*, 235-263.
- Denham, S. A., & Kochanoff, A. T. (2002). Parental contribution to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34*(3), 311-343.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 65-86.
- Dunn, J., & Brown, J. R. (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137.
- Dunn, J., Brown, J. R., & Bear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Vol. 14, Emotion and social behavior* (pp. 119-150). Newbury park. CA : Sage.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Valiente, C., Morris, A. S., Fabes, R. A., Cumberland, A., Reise, M., Gershoff, E. T., Shepard, S. A., & Losoya, S. (2003).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al emotional expressivity, children's regulation, and quality of socio-emo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3-19.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Parke & G.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 Mode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 Erlbaum.
- Fabes, R. A., Eisenberg, N., & Bemzweig, J. (1990).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CCNES) : Description and scoring*. Tempe, AZ : Arizona State University.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1.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 Madden-Derdich, D. A. (2002).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 285-310.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Gottman, J. M. (1997). *The heart of parenting : How to raise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New York : Simon & Schuster.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Han, Y. M., & Shon, K. H. (2004). A study on the mothers' rela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1), 197-206.
-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oyle, R. H., & Panter, A. T. (1995). Writing about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lif : Sage.
- Joo, S. Y., & Lee, Y. H.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for children in grade 4 through 6.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2), 91-113.
- Kang, H. Y., & Kang, M. H. (1999).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reactions to preschoolers' negative emotions, coping styles and peer accepta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3), 171-182.
- Katz, L. F., & Hunter, E. C. (2007).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atology. *Social Development*, 16(2), 343-363.
- Kim, K. S. (2010). (AMOS 18.0)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equation modeling*. Seoul : Hannarae Academi.
- Kim, M. J. (2003).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their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E. K., Doh, H. S., Kim, M. J., & Park, B. K. (2007). Social competence : Its relationship to parents' attitudes towards children's expressiveness and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3), 115-131.

- Kim, J. H., Kim M. K., & Hong, S. H. (2009). *The academic research paper writing as the structure equation modeling*. Seoul : Cuni-cation books.
- Kim, J. Y., & Nahm, E. Y.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and children's stress-coping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5), 13-28.
- Kim, H. K., & Yoo, M. S. (2010).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playfulness on emotion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5), 115-130.
- Khaleque, A. M., & Rohner, R. P. (2002).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 A meta analysis of cross cultural and intra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54-64.
- Ko, J. J. (2005). The effect of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s' self-control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2), 1-17.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34-949.
- Lee, K. Y. (2007). A comparison of reaction between mothers and father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3), 455-463.
- Lee, K. Y., Choi, I. S., & Sung, M. Y. (2007). The relation of parents' emotion socialization to the development of emotion in thei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3), 187-199.
- Lim, J. H., & Chung, O. B. (2004).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Korean Parenting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1(4), 55-73.
- Mattanah, J. F. (2001). Parenting psychological autonomy and children's academic competence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late childhood : More than just limit-setting and warmth. *Merrill Palmer Quarterly*, 47(3), 355-376.
- McFadyen-Ketchum, S. A., Bates, J. E., Dodge, K. A., & Petit, G. S. (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or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2433.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 361-388.
- Oh, J. H., & Cho, Y. J. (2009). A comparative study on mothers in counseling and mothers in non-counseling groups : Emotional expressiv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ype of communication,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5), 195-208.
- Park, J. K., & Doh, H. S. (2001). The effects of maternal monitoring and information sources of maternal knowledge o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fo adolesc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12), 129-140.

- Park, S. C. (2004). Relations between maternal socialization behaviors of emotions and school-aged children's competence and strategies of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C., & Kim, S. O. (2005).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school-aged children's strategies and competence of emotion regul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3*(4), 35-49.
- Rah, Y. M., & Lim, Y. J. (2003).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monitoring to deviant behavior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3), 87-98.
- Saarni, C. (1989). Emotional competence :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grated. In R. A. Tompson (E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p.115-182). Londo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choon, I. (2006). *Risk and resilience : adaptation in changing tim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o, H. L., & Lee, Y. (2008). The effects of maternal attitude toward child'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on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2), 33-56.
- Shortt, J. W., Stoolmiller, M., Smith-Shine, J. N., Eddy, J. M., & Sheeber, L. (2010). Maternal emotion coaching, adolescent anger regulation, and siblings'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7), 799-808.
- Siegel, D. J., & Hartzell, M. (2004). *Parenting from the inside out*. New York : Penguin.
- Sroufe, L. A., Carlson, E., & Shulman, S. (1993). Individuals in relationships : Develop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In D. C. Funder, R. Parke, C. Tomlinson-Keeseey, K. Widaman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 Approaches to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p. 315-342).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tocker, C. M., Richmond, M. K., Rhoades, G. K., & Kiang, L. (2007). Family emotional processes and adolescents'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6*, 310-325.
- Trumpeter, N., Watson, P. J., O'leary, B. J., & Weathington, B. L. (2008). Self-functioning and perceived parenting : Relations of parenting empathy and love inconsistency with narcissism, depress,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9*, 51-71.
- Valiente, C., Lemery-Chalfant, K., & Reiser, M. (2007). Pathways to problem behaviors : Chaotic homes, parent and child effortful control, and parenting. *Social Development, 16*, 249-267.
- Woo, J. P. (2012). *(AMOS 4.0~20.0) A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equation modeling*. Seoul : Hannarae Academi.
- Yap, M. B. H., Allen, N. B., Leve, C., & Katz, L. F. (2008).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socialization of adolescent affect : The moderating role of adolescent tempera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688-703.
- Yap, M. B. H., Allen, N. B., & Ladouceur, D.

(2008). Maternal socialization of positive affect : The impact of invalidation on adolescent emotion regulation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Child Development, 79*(5), 1415-1431.

Zelman, J., & Shipma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 Reason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42-849.

2013년 8월 30일 투고, 2013년 12월 5일 수정
2013년 12월 17일 채택